

강한 소상공인 연 150팀 발굴...e커머스 소상공인 10만 양성

정부 2023~2025 소상공인 지원 계획

정부가 창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역량을 갖춘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발굴·지원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또 온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양성하고 지역기업과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로컬브랜드 상권' 구축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찾는다...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에 나선다. 창업 단계에서는 올해 개방형 창업공간인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5개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지원한다.

예비 창업자 발굴 사업모델 고도화...투자제도 신설 민자 유입 유도 e커머스 소상공인, 산업·문화·콘텐츠 연계 '로컬브랜드 상권' 구축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지역까지 창업가) 등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유망 프랜차이즈를 연 25개 육성하며 오는 2027년까지 백년가게 1750개, 백년소공인 1150개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강한 소상공인'은 창작자·스타트업 등과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다. '백년가게'는 고유의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말하며, '백

년소공인'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우수 소공인을 가리킨다.

도약 단계에서는 소상공인에 적합한 투자 제도를 신설,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되도록 해 스케일업(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에도 나서 오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의 경우 5개사 정도의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온라인 역량 강화와 인프라를 지원해 온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올해부터 매년 10만명씩 양성하기로 했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3조원 지원...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로 부담 덜어줘=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정책융자 3조원과 신용보증 25조원을 공급한다. 내년까지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도 9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책융자는 상반기 78% 정도를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대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가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에너지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도 본격 추진한다.

지역 기업과 지역의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해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는 디지털 전담 인력과 배송 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내는 선도 모델인 '동대 전통시장'을 2개 조성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 환경 개선과 화재경로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연체자도 100만원 바로 대출... '소액 생계비' 대출 나와

금융위, 취약계층 대상 27일부터 소득 증빙 확인 어려워도 가능 '자금 용도·상환 계획서' 필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를 돕기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다.

다른 정책 서민금융에 비해 문턱도 낮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워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가 필수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이다. 다만 최초 50만원을

빌려준 뒤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로 50만원을 더 빌려준다. 병행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율은 연 15.9%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 금리가 인하된다.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금융교육 이수한 뒤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으로, 6개월 후에는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3원, 1년 뒤 7833원이 된다.

만기는 1년이며, 최종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은 1회만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한 총 1000억원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으로부터 2024~2025년 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받아 공급 재원을 늘릴 예정이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11개 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참여해 상담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신고 센터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불법 추심행위에 대응)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초기 청구 혼잡 방지를 위해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해야 한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오는 22~24일 이뤄지고, 실제 대출은 오는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한편, 금융위는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와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실행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 상품 광고를 일일 진행하지 않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국세청, 납세자 중심 현장 소통 강화

납세홍보 수요조사 홈페이지 개설

광주지방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홍보 수요조사에 나선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코로나19 이후 국제행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납세자의 다양한 세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납세홍보 수요조사 홈페이지(www.gnts.kr)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요조사 홈페이지에는 국제세에서 연간 추진 중인 업무 집행과 관련, 납세자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설문(수요)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있다.

지방청 각 소관부서의 각종 간담회나 설명회 일정을 사전에 공지해 납세자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세목별 맞춤형 도움자료와 숏폼영상을 게재해 납세자의 세무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윤영석 청장은 "납세홍보 통합관리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운영해 납세 현장의 요청사항을 세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세무정보에 취약한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광주청 납세홍보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납세자의 세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사업 경영에 필요한 세무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국제행정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친환경 삼성 가전 할인 '에너지 세이빙 특별전'

5월 31일까지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등

삼성전자는 고효율 에너지 절감 가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가전을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삼성전자 에너지 세이빙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냉장·냉동·냉장고, 그랑데 AI 세탁기·건조기, 무풍에어컨, 에어드레서 등 다양한 비스포크 가전과 QLED TV 등 총 9개 품목·30개 모델을 대상으로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해당 제품 중 2개 품목 이상 동시 구매 시 제품당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에어컨 구매 시에는 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전자 에너지 세이빙 특별전'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올해 기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보다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인 신제품들을 출시했다.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25kg)와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각각 20%, 10% 소비전력량이 더 낮다.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에는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을 최대 60% 줄여주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코스'를 국내 최초로 적용하기도 했다.

스마트싱스(SmartThings)의 'AI 절약모드'를 함께 사용하면 소비 전력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에어컨은 최대 20%, 세탁기는 최대 60%, 건조기는 최대 35%까지 에너지가 절감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와 함께 'AI 절약모드'

사용을 인종하거나 퀴즈 참여를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스마트싱스 AI 절약모드' 체험 이벤트도 삼성닷컴에서 진행한다.

향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 제품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전 라이프를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우리 집 가전의 전력 소비량을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계산기' 서비스를 삼성닷컴에 선보인다. 가전 품목·출시연도·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 정보를 입력하면 평균 소비전력량을 알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은행, KIA 타이거즈 우승 기원 예·적금 출시

연 최고 4.05% 금리 혜택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023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오는 7월 31일까지 판매하며,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1호로 가입해 KIA타이거즈의 우승을 기원했다.

광주은행은 매년 프로야구 시즌마다 KIA타이거즈의 우승을 기원하는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KIA타이거즈의 포스트시즌 진출로 올해 KIA타이거즈를 응원하는 팬들의 기대도 커지면서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이 흥행할 것으로 광주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은 50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하며, KIA타이거즈 프로야구 성적에 따라 최대 연 0.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05%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우대금리의 조건은 ▲KIA타이거즈 포스트시즌 진출 시 연 0.05%포인트 ▲정규시즌 우승 시 연 0.1%포인트 ▲한국시리즈 우승 시 연 0.1%포인트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적금'은 월 1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정액적립식 상품으로 예금과 동일한 조건의 우대금리(최고 연 0.25%포인트)를 제공하는 한편, 응원 의 재미를 더하기 위한 이벤트 우대금리를 최대 연 1.55%포인트 제



고병일(가운데) 광주은행장이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 출시를 기념해 1호로 가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공해 최고 연 5.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벤트 우대금리 조건은 ▲정규시즌 최종 순위에 따라 최고 연 0.5%포인트 ▲정규시즌 팀 승수에 따라 최고 연 0.5%포인트 ▲정규시즌 최장 연속기록에 따라 최고 연 0.55%포인트 항목별 1회에 한해 제공된다.

1호 가입자로 나선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설레는

봄과 함께 찾아온 2023 프로야구 시즌에 지역민 및 야구팬들과 공감을 나누고자 매년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출시하고 있다"며 "지역민과 고객들의 금융니즈 및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상품·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금융생활 동반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상의 '전자입찰 실무교육' 내달 2일 개최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88.35(+9.15)
↑ 코스닥	802.53(+0.33)
↓ 금리(국고채 3년)	3.294(-0.030)
↑ 환율(USD)	1311.20(+1.10)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광주시와 함께 다음달 2일 오후 2시 광주상의 3강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자입찰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 경기침체로 주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공공·민간 입찰 낙찰률을 높여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찰의 개요 및 절차', '공고의

구성 및 입찰용어', '입찰의 계약방식', '신용평가 확인서 발급', '투찰금액 산정 및 적격심사 점수 산출', '낙찰 및 계약 유의사항', '입찰정보 서비스 이용방법' 등이다.

광주상의는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6000여 개 기업에 약 1조원 규모의 낙찰을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 매출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교육은 전액 무료다. 광주상의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홈페이지(https://gicci.bidpage.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전화 062-350-5891. /박기용 기자 pboxer@

'애플페이' 국내 상륙...간편결제 생태계 흔들까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마침내 한국에 상륙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애플과 현대카드는 21일 오전부터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이폰과 현대카드를 보유한 이용자는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매장에서 카드 실물 없이 휴대전화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국 편의점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

점,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등이 근거리무선통신 단말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카가오페이와도 간편결제 상호 서비스 연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애플페이가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크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